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사업 '성과'

군산시,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최종 선정

군산시가 최근 들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들이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약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군산시는 고군산의 도서별 특성을 살린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육된 4개 도서(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개별사업을 도서별 특성에 맞게 신규사업과 적절히 연계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서면평가, 서면질의서 작성 등 평가에 내실 있게 대응하고 3월 발표 평가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직접 참여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등으로 사업선정 의지를 표명한 결과 최종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군산시는 앞으로 3년간 총사업비 195억원(국비 98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67억원)을 투자받게 된다.

군산시는 사업으로 신시도 일원에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 신시도항 일원 어촌마을을 정비하고 '해양생태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녀도에는 교동편의시설 등 필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뉴딜300사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도

업'과 연계, '수산특화형 관광거점'으로 특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자도는 도서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장점을 살려 차도선 접안시설 및 여객선 편의시설을 확충해 '해상교통거점'으로 역할을 수행 해 전망이다.

시는 4개 도서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향후 새만금 신교통과 연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했다

군산시, 산불예방 대책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지속되는 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른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 산불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본부는 시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23개 읍면동에 설치·운영해 아침 9시부터 일몰시까지 특별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시 전 직원의 6분의 1을 각 읍면동 산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초동진화를 실시해 대형 산불을 예방하였고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적극 계도와 함께 단속활동을 벌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지난 5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산불방지대책 긴급협의회'를 주재해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논밭 및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읍면동장과 협조를 통해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 대부분은 지난달부터 8일 현재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과 동시에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헬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15일부터 모집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현태)가 '2019년 제2기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200명(주간 120명, 야간 80명)을 모집하며, 평소 운동부족으로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건강 위협군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는 5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6주 동안 참여자의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효과적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기업 옴부즈만 확대를"

정현을 익산시장, 간부회의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1기업 1담당관을 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확대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이다. 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 등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정 시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기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가 핵심"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취업희망자 간 매칭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업과 공무원을 1대1로 연계하는 '1기업 1담당관'을 시행 중이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확대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기업 인력수요를 파악해 은퇴자 등을 비롯한 일자리 매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영원 기자

내일부터 익산 쌍릉 소왕릉 발굴조사

익산시의 문화재청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익산 '쌍릉 소왕릉(小王陵)'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등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오는 9일 오후 2시, 소왕릉에 모셔진 영령을 위무하고 조사단의 안위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릉의 소왕릉은 대왕릉(大王陵)의 비(妃) 능으로 알려져 있으며 1917년 일본인 아쓰이세이치(谷井濟一)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조사 후 약식 보고문과 실측도 일부만 전해질 뿐 명확한 성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번 소왕릉 발굴은 쌍릉의 종합적인 정비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민(民) 관(關) 학(學)이 상호 협력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발굴조사단은 일제강점기 당시 훼손된 소왕릉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봉분의 축조 방법과 석실의 규모와 형태 등 세부 실측도 작성에 주안점을 둔다.

앞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대왕릉 발굴조사에서는 사비기 최대 규모의 무덤방(石室)과 널길(墓道), 판축(板築)으로 조성된 봉분 등이 확인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내부에서 수습된 인골(人骨)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백제 30대 무

왕(武王·재위 기간 600~641)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군산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방치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포함 8억 1,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507개 경로당에 914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쳤다. 또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며 필터점검 알림, 공기오염 알림 기능 등이 포함된 KC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을 경로당별 사용공간과 면적에 따라 2대까지 보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문체부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국비 등 총 6억원 투입 공영주차장 조성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더 어바웃@익산'이라는 주제로 신청했으며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전국 27개 지자체 가운데 익산시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국비 포함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문화나, 축제, 이벤트를 수용하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모델과 브랜드를 개발해 원도심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문화예술거리 등의 공영주차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거리의 낙후된 주차시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해 활력을 주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